전법 일기

남한산성 장경사서 마음을 내려놓았다

20222년 8월 하안거 해제일, 제2교구본사 용주사 문화국장 3년 소임을 회향했다. 은사스님의 부름과 큰 뜻이 있었기에 부득이 소임을 내려놓게 됐다.

은사스님의 부름을 받고 대구 팔공산 파계사 대비암에 걸망을 풀었다. 사실 1년 전부터 중앙종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중 내에서는 다른 입후보자스님을 돕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오랜 준비가 물거품이 됐다는 안타까움과 서운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은사스님께서 힘들어 하는 모습에 문중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모두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대비암에서 운력 수행을 시작했지만, 쉽게 마음이 추슬러지지 않았다. 결국 은사스님께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고, 오로지 기도하기 위한 곳을 찾아 팔공산을 내려왔다.

우선, 사찰넷(불교 구인 광고)에서 기도스님 구인을 검색했다. 잠시 모든 인연을 끊고 조용히 100일기도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곳이 남한산성 장경사였다. 사찰에 전화해서 기도스님 면접 일정을 잡고 장경사로 갔다. 장경사에 도착해서 가사 장삼을 수하고 대웅전 부처님께 인사부터 드리고 종무소로 갔다. 그곳에서 총무스님에게 면접을 봤다. 스님께서는 별말 없이 "기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총무스님이 별 말씀이 없던 것은 앞선 부전 소임을 위해 오는 스님들이 가사 장삼도 수하지 않고, 부처님께 인사도 없이 면접을 보는 스님이 많았는데, 필자는 달랐다는 것이다. "승려의 법도에 맞게 가사, 장삼 수하고 대웅전 부처님께 인사드리는 모습을 보고 바로 합격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2022년 11월부터 남한산성 장경사에서 부전 소임을 시작했다. 새벽4시 새벽예불, 가사 장삼을 수하고 대웅전 법당으로 가는 길은 고요했다. 오랜만에 새벽하늘을 빛내는 별도 볼 수가 있었다. 도량석 목탁소리는 남한산성 일체 만물들을 일깨우며, 목탁소리에 담은 염불은 왜 그리 구슬픈지 마음이 메어왔다.

장경사에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 수행하면서 스스로 운력에도 몸을 아끼지 않았다. 1년 4개월 부전 소임을 보면서 목탁 4개를 깨뜨렸다. 일부 신도들은 필자의 힘 있는 염불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있었다. "그 스님 오셨나 보다"라고.

필자는 2024년 2월 동안거 해제와 함께 장경사 기도 소임을 회향했다. 소임을 회향하는 날 신도들의 작별 인사와 배웅을 받았다. "더 오래 계시라"고 붙잡는 신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신도 등등. 신도들의 감사인사에 마음이 행복해졌다. 다시 한번 장경사 사부대중과 신도들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린다.

"1년 4개월 동안 장경사 부처님 품안에서 머물 수 있었던 인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장경사 신도 여러분! 항상 복 짓는 하루 보내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명진 스님
파계사 총무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⑬ 신찬 선사의 오도송

닫친 문 두드리는 어리석은 벌 되지 말라

열린 문은 마다하고 닫힌 문만 두드린다

벌아, 활짝 열린 공문(空門)을 마다하고
(空門不肯出)
굳게 막힌 창문만 두드리는구나
(投窓也大痴)
백 년 동안 옛 종이를 뚫으려 한들
(百年鑽古紙)
어느 때 벗어나길 기약하겠는가
(何日出頭期)

이 선시의 유래와 내용이 산사의 벽화에 더러 그려져 있는데, 서울 삼룡사 법화삼매당의 벽화 그림이 유명하다.

신찬(神贊) 선사의 오도송과 일화는 고려 때 백운(白雲) 선사가 저술한 〈직지심경(直指心經)〉(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에 수록되어 있다. 신찬 선사는 백장(百丈) 선사(720~814, 중국 선종 9대조사)의 제자이다. 그는 일찍이 중국 복주 고령사(古靈寺)에서 계현(戒賢) 스님의 제자가 되어 경전을 배우다가 당시에 최고 선지식인 백장 선사를 찾아가 참선 공부에 열심히 정진하여 "자신의 본래 마음이 부처(見性成佛)"인 것을 깨달았다.

오도(悟道) 후 다시 은사인 계현 스님에게 돌아와 시중을 들었다. 어느 날 은사스님이 창문을 반쯤 열어 놓고 경전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벌 한 마리가 들어와서 열려있는 문으로 나가지 않고 닫힌 창문에만 가서 부딪치는 모습을 보고 신찬 선사가 스승을 위하여 게송을 지어 읊은 것이 이 오도송이다.

1구의 '공문(空門)'은 현실세계에 나타난 물질 현상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연화합으로 잠시 모여서 이루다가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무아(無我) 즉, 공의 세계임을 밝힌 진리의 세계이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 집착하는 일은 부질없다.

3구의 '옛 종이(古紙)'는 불교경전을 뜻한다. 원래 경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종파가 교종(教宗)이고, 경전(손가락)을 부정하고 직접 명상 수행을 통해서 달(깨달음) 즉, 신령스런 마음의 본체를 발견하는 종파가 선종이다.

이 시는 자신의 마음을 직접 찾는 참선 수행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선종시이다. 평생 경전만 보는 교학승(教學僧: 경전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승려)인 스승의 잘못된 수행 방법을 "열린 문은 마다하고 닫친 문만 두드리는" 어리석고 고집스런 벌의 모습을 비유하여 일깨워주고 있다.

이 게송을 들은 계현 스님은 제자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깨달음을 얻은 제자에게 대중을 모아 법문을 청하였다. 은사스님은 제자의 오도(悟道) 설법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늙어서 상좌에게 최상의 법문을 들으니 부처님의 은혜로구나"라고 하였다. 제자의 수행 경지가 스승을 앞서는 청출어람(青出於藍)하고, 지혜가 밝은 제자에게 불치하문(不恥下問)하고 가르침을 청하는 선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은 높은 산을 오르는 지도와 같다. 아무리 좋은 지도가 있어도 직접 산을 오르지 않으면 지도가 소용이 없다. 서산 대사는 〈선가귀감〉에서 "부처님 말씀은 교(教)이고, 부처님 마음은 선(禪)이다.(教是佛語 禪是佛心) 그러니 교와 선은 똑같은 것이니, 함께 수행하라(禪教一致)"고 하였다.

불교는 참된 마음과 올바른 진리를 찾아서 부처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이다. 〈유마경〉에 "올바른 마음이 수행의 장소인 도량(直心是道場)"이라고 하였다. 임제 선사는 직심(直心)을 갖기 위해서는 편견과 우상을 버리라고 하였다. 올바른 마음과 투철한 수행만이 혼탁하고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린 사회와 대중을 바르게 이끌 수 있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눈 밝은 선지식, 어디에 계신가요

최근 자주 들르는 사찰에서 한 새내기 불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어쩌다 보니 신행 상담처럼 진행된 대화 속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됐다.

바로 '불교'와 '사이비 무속신앙'을 혼동한 것이다. 원인에는 평소 즐겨 찾았던 불교용품점 사장에게 있었다. 불교용품점 사장은 자신을 '법사'라고 소개하며 본인도 불자라고 주장했다. 같은 불자라는 말에 안심한 새내기 불자는 불교용품점을 들릴 때마다 그와 종종 불교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새내기 불자는 처음 만난 도반에 기뻤다. 하지만 "'영(靈)'을 맑게 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부터 "나는 법사니, 눈을 쳐다보면 기운을 살필 수 있다" 등 점점 불교와 맞지 않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어느 날 사장은 무속에서 쓰는 오방기를 꺼내더니, 그를 향해 "부처님이 너를 이뻐하니 과일을 사서 기도를 해야한다"며 사이비 무속 행위를 강권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이상함을 느낀 새내기 불자는 사장과 결별했고, 지금은 여법한 도량에서 신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서 불교를 바르게 이끌어줄 선지식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게 된다. 〈법구경〉에서는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의 밤은 길고 멀어라"는 구절이 있다. 스승의 바른 인도 없이 불법의 길을 걷는 사람은 무명의 어두움에 헤맬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근현대 고승 만공 스님도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승, 장소,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만큼 스승의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불교는 드넓은 바다와도 같아, 초보 불자들이 길을 잃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이제 불교라는 바다에서 항해를 시작한 그들에게 직접 선지식을 찾아내라고 다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진정 '눈 밝은 선지식'이라면, 길 잃고 헤매는 불자들을 위해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그 모습을 나투시는 대자비의 '관세음보살'처럼 말이다.



김민재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30 BTN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BTN 불교TV무상사 일요초청법회
3월 2일(일) 오전 10시
BTN불교TV 개국 30주년을 맞아
종정예하를 모시고 법회를 봉행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
BTN 개국 30주년 특별생방송
함께 이룬 30년
다시 뛰는 BTN
3월 6일(목) 09:00~18:00
09:00~ 상준, 법장, 자현, 광우스님의 희노애락 릴레이 Live 법문
13:00~ BTN불교TV 영상포교 30년의 여정을 함께한 스님과 출연자를 만나보는 시간
17:20~ 임직원 예불 (BTN불교TV 무상사)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